



“사진은 단순한 기록 넘어 존재의 심연 출입문”

김창호 사진전 26일까지 아크갤러리
‘창’ 주제 마음 안팎 조망 35점 작품
“시간·공간... 삶 필연적 여정 기록”



“보는 행위’ 자체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 것. 당신의 창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나는 뛰어난 창 너머로 나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는 것. 그것이 이 사진들이 바라보는 진정한 대화일까 생각해 봅니다”

창이 풍경만을 비추면 풍경만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이입해 마음의 창으로 잡는 사진은 우리의 내면 깊숙히 그 서사가 파고든다. 아주 비싼 사진기로 세상의 풍경을 잡는다고 해서 마음에 닿지는 않을 터다. 만약 누구나 비싼 카메라로 마음에 가닿은 창을 확보할 수 있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비싼 카메라를 구입하려 할 것이다. 작품도 그 작가의 마음의 품성과 함께 가는 듯하다. 오로지 돈만 보고 찍는 사진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기에 그 얽은 수만 드러날 뿐이다. 하지만 예술을 위해 마음을 비운 채 나아가는 자에게는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여러 개의 마음으로 통하는 창을 달 수는 있지 않을까 싶다.

위 멘트의 당사자는 자신이 내세울만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오로지 사진에 관한 열정으로 버티려온 일흔 고개를 아로새겼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일상을 구가하면서 단 한 컷이라도 온 마음을 다하지 않은 사진이 없듯, 매사 생활터전을 외면하지 않고 카메라 앵글을 터치해 온 김창호 작가(72·광주원아트 대표)가 그다. 김 작가는 5·18민중항쟁 때 그해 26일 아침까지 비극적인 도청 현장에 있었다. 시신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 염(염습)을 하며 국가폭력의 현장을 날날이 마



‘세상과의 빗장’

주쳐야 했다. 이때의 트라우마로 10여년 동안 광주를 떠나 있어야 했다. 이후 그는 카메라를 들고 생의 이면을 탐나들었다. 사진에 있어 그에게 생의 이면은 아마 낡은 것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것 등이 아닐까 싶다. 이런 생의 이면에 대한 그의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작가는 프랑스 남부 세벤스 로제르예술가마을에서 ‘여행자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열린 사진전(2025.8.20~9.3) 때 작가노트를 통해 “삶의 여정은 여행이다. 출발의 선택에서 삶의 방향이 주어지듯 삶 또한 태어남과 동시에 길을 떠나는 여행자와

같다”면서 “나의 삶 속의 특별한 만남과 나의 시선은 1mm의 렌즈 속에서 찰나적인 순간으로 기록되며, 과거가 현재 속에 존재한다. 오늘 이 순간,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춰 서서 삶의 기쁨을 담아내는 나의 여정은 삶의 존재에 대한 필연적 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에서 알 수 있는 대목은 카메라 앵글로 단순한 피사체가 아닌, 우리들의 시간을 기록하려 애쓴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

어찌보면 이런 연장선상에서 그의 사진들을 논할 수 있지만 이번 사진전은 ‘창’을 주제로 하고 있다. 외부에서의 ‘창’은 그것을 경계로 안팎에서 바깥쪽을 조망한다. 하지만 마음의 창이라는 설정에서는 바깥에서 안을 조망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 두 간극 사이에는 이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창안에서는 창밖이 궁금하지만 마음의 창에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공간 보다는 내면 풍경이 궁금한 것이다. 창은 물질에 경도된 것이 아닌, 마치 목은 지처럼 폭삭한 세월의 먼지가 단단히 낀 것이다. 작가는 카메라 앵글에 담긴 창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그는 무엇을 담고 싶었을까가 자못 궁금했다. 분명한 것은 이같은 생의 이면을 늘 탐구하고 조망해 왔다는 점이다.

김창호 사진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에게 사진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존재의 심연으로 향하는 출입문이다. 낡은 창문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삶의 감각이 겹겹이 쌓여 있는 흔적의 감각이며, 외부와 내부를 이어주는 숨이 깃든 통로이다. 창문에 비추는 또 하나의 거울은 일상의 삶을 기록하며 서치는 시간의 공간이고, 존재성이 드러나는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유리에 낀 먼지와 긁힌 자국은 세월의 삶 속에 겪은 상처와 복잡한 감정, 미묘한 감각들이 앙근 그림자의 기어다니는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말한다”면서 “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환영은 그 존재가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 채, 저 너머 나의 또 다른 내면의 울림으로 유혹의 터치가 된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사진전은 다섯번째로 지난 17일 개막, 오는 26일까지 아크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35점을 출품해 선보이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내 삶은 실수와 상처,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소설가 장정희 산문집 ‘존경 따위 넣어둬’ 출간
“과거보다 나아졌다면 과오를 채찍질한 덕분”

광주 대광여고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소설가 장정희씨가 산문집 ‘존경 따위 넣어둬’(꿈의지도 刊)를 펴냈다.

365일 사표를 품고 다니던 40년차 국어 교사의 생존 분투기가 담긴 이번 산문집은 소설 ‘옥봉’의 작가이기도 한 저자가 쓴 대한민국 교사의 비망록이다.

극한 감정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책임과 역할 때문에 오늘도 혼자 참고 견디고 있을 많은 선생님들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바라보는 공감의 전제된 듯하다. 특히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교단에서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을 선생님들께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로 읽기에 완성작이다.

교육적 소신과 관련된 글에서는 현실과 이상 사이 극명한 간극이 노정된다. 현실이 이상을 너무 부정한 시대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가령 ‘쉬면 고인다’(149~152쪽)에는 경쟁의 현실에 순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그 세대에게 갖게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들여다본다.

이런 현실은 교사들 스스로에게 ‘경쟁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어버린 입시의 현장에서 실과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는 선생은 변하는 현실에 대처할 줄 모르는 무능한 선생이거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아이들을 주저앉히는 나쁜 선생인지 모른다’



라는 대전제를 되뇌이게 만든다. 현실을 눈치보야 하니까 이상을 부정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포개지고 있는 교육풍토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역시 포착된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현실의 제약 때문에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 여전히 지지를 보낸다. 가령 좋은 영화를 골라보는 일, 만난 지 오랜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일, 평소 밀쳐 두었던 책을 읽는 일, 말린 잠을 보충하는 일, 아무 일 안 하면서 반등거리는 느낌을 갖는 것 등이다. 저자는 월요일 아침 가방끈을 당기고 집을 나서야 할 아이들에게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 산문집은 임시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무사히 40여 년을 버티낸 어느 국어교사이자 소설가의 생존기. 자신의 실수와 시행착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제자들과 동료들에게 바치는 고해성서이고, 오늘날 교실과 복도를 오가며 교단



분투하는 선생님들께 건네는 연대의 손길이다.

이 산문집은 교실에서 하는 수업시간처럼 구성됐다. ‘한평생 교사-수업 목표 : 나만의 숨구멍 찾기’, ‘다정한 마음으로-수업 목표 : 가르치면서 배우기’, ‘다독다독 한 짚음-수업 목표 : 세상을 환히 밝힐 꽃들에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수업 목표 : 기꺼이 버티기 위하여’, ‘교사와 작가 사이-수업 목표 : 글쓰기에는 치유의 힘이 있어서’, ‘나누는 즐거움-수업 목표 : 작품에서 배우기’ 등 6교시 체제로 구성됐다. 교사 출신다운 구성으로 다가왔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포함해 모두 58편의 글이 수록됐다.

작가는 프롤로그 글에서 “돌이켜보면 내 삶은 실수와 상처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내가 조금이나마 과거보다 나아졌다면 그것은 과오가 나를 채찍질한 덕분”이라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군부대·학교... 일상서 마주친 ‘뜻밖의 오페라’

시립오페라단 ‘찾아가는 공연’ 호응...6월까지 확대

광주시립오페라단이 군부대·학교·공공기관 등에서 펼쳐지는 ‘찾아가는 공연’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대 위에 머물던 오페라를 시민의 일상으로 이끌어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 문화예술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의 ‘찾아가는 공연’은 관객이 공연장을 찾는 기존의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공연이 직접 관객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능동적 전환의 예로 꼽힌다. 앞서 9월 육군 제31보병사단에서 열린 ‘갈라 콘서트’는 문화현장을 찾기가 어려운 장병들에게 직접 오페라의 감동을 전달했고, 15일 광주시청 로비에서 열린 ‘오페라 THE 가까이’는 점심시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기여했다. 별도의 객석이 없는 열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머무르며 관람하는 풍경을 연출, 뛰어난 접근성을 증명했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오는 5월과 6월에도 풍성한 공연 일정을 이어간다.

먼저 5월19일에는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지맵(G.MAP)에서 ‘OPERA X G.MAP: 공명’을 선보

인다. 오페라와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융합형 공연으로, 시각적 연출을 극대화해 관객의 오감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어 5월21일에는 육군 화성방학교를 찾아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펼쳐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을 곁들인 무대를 통해 관객들의 이해와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5월27일에는 광주시청 로비에서, 6월11일에는 월곡초와 순천김남포고에서 각각 무대를 선보일 전망이다. 미래 관객을 확보하고 문화예술 교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시민과 청소년이 오페라를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설과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를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윤영문 전담장은 “‘뜻밖의 오페라’는 신규 관객층의 유입을 이끄는 것은 물론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공공예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부대, 학교,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현장을 중심으로 접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시립오페라단의 ‘찾아가는 공연’은 관객이 공연장을 찾는 기존의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공연이 직접 관객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능동적 전환의 예로 꼽힌다.